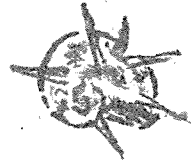




취미건강



姜 允 植

現 忠南道廳 保健課長

밀감農場을 가꾸며

人生과 건강을 익히고.....

(1)

수년전 정석모 도백(道伯)께서 부임한 직후 새마을 홍보마을인 우리 "대별리"를 순시한 일이었다.

그때 농장을 찾아주신 정지사께서는 「이토록 어려운 밀감 하우스 재배를 착안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나?」고 물은 일이 있는데 그때 나는 부지중 「그저 노후 대책이죠」라고 지나칠 정도로 꾸

밌세 없는 대답을 하여, 도백은 물론 수행했던 모든 분들을 실소(失笑)케 한 일이 있다.

한 건실한 농부를 위로, 격려하려는 도백의 자비로운 물음에 어구치니없는 우답(愚答)을 해버린 나는, 그후 오랫동안 직장이나 마을에서 조롱거리가 됐다. 그러나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던 나로서는 그당시의 짧막하고도 우직한

대답이 자신의 성격과 인생관을 솔직하게 표현한것으로 자부하고 있다.

「노후대책」이란 흔히 노후의 생계대책으로 그릇 인식하기 쉬우나 그실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이라고 정의(定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나는 지난 10년간 천평 남짓한 밀감 농장을 가꾸면서, 나의 인생과 건강을 의하고 배워 왔다.

만물이 무거운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인 한 겨울, 은빛 비닐하우스 안에서 새싹과 꽃망울을 터트리는 밀감 나무의 싱그러운 모습과 향기속에서 족히 인생의 푸르름을 만끽할 수 있다.

적절한 노동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각고의 영농생활을 통해서 건강한 몸과 강한 의지를 북돋울수 있다.

내 정성과 손길이 한번이라도 더가면 갈수록 소출을 풍성하게 해주는 “정직과 성실”을 배울수 있다. 이 어찌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인생의 도장(道場)이 아니라?

(2)

그러나 매사를 도모할때 자신의 인생을 자로 재듯이 설계하며 사는것은 아니다. 이 농장을 시작할 때만해도 그렇다. 구수한 흙내음이 향수처럼 설레이던 늦가을 무작정 농장 순례에 나선일이 있었다. 한창 파인애플의 하우스 재배로 이름을 떨쳤던 진주 강영환 씨의 시설 원예 농장을 찾았을때다.

600 평 남짓한 “하우스”안에 한창

숙기에 접어 들었던 조생 밀감이 주렁주렁 황금 빛으로 물들어있는 장관을 보고 나는 좀처럼 그자리를 떠날줄을 몰랐다. 나는 돌아오는 즉시 얼마간의 농지를 마련하고 빛을 얻어 그 이듬해 봄 묘목을 입식했다.

무일푼의 상태에서 무작정 시작을한 나는 사면초가의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다. 주위 사람들은 우선 영하 15℃를 오르내리는 대전지방에서 아열대 식물인 밀감나무를 재배해 보겠다는 나의 만용을 비웃었다.

가족들의 지지가반 마저 상실한 나는 하는수 없이 농장 한구석에 두평자리 농막을 짓고 자취(自炊)를 하며 농부와 공무원을 겸직했다.

마을사람들은 「육지에 밀감을 심으면 탱자가 열린다던데…」하며 걸으려는 우려와 위로를 보내는 척했으나 내심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닌가 하고 의심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확신을 가지고 폐기 만했다. 먼동이 틀때 일어나 달이 지셀때 자리에 눕는 고군분투의 한해가 지났다.

4 중 비닐 피복으로 무사히 월동을 시켜 다음해 2월 새싹과 꽃망울이 터져나오는 것을 보고 나는 마음속에 승리의 개가를 울렸다. 그해 가을 제주밀감이 나오기 달포전에 많은 량은 아니였지만, 산미와 감미비가 알맞게 조화된 우량 밀감이 수확되었다.

따내기조차도 송구한 밀감알을 조심



← 도청에서 근무하는
姜允植과장

스럽게 수확하여 나는 나를 불신했던 모든 사람에게 남김없이 선사했다. 기적을 본것같이 신기하고 기뻐해 주었다.

다행히 가족들의 의구와 반대도 가셔서 그해 늦가을 농장 가까이에 이사를 했고 묘목을 입식한지 3년의 각고끝에 개원 당시의 밋도 값아 농장은 정상 운영이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수많은 새마을지도자 농어촌 후계자들의 시찰 행렬이 잇달았고, 차츰 메스컴의 각광을 받아 「대별리」 하면 달고 맛있는 “꿀밀감”의 산지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1980년 내륙 지방의 하우스 밀감 재배에 적신평가 올렸다.

원산지인 제주도에서 미숙과일을 착색하여 일찍 상륙시키는가 하면, 우리 농장과 거의 숙기가 같은 극조생 품종이 개발 됐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즉각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시설투자와 관리비가 과중하기는 하지만, 열풍기를 설치하여 인공 가온재배를 우리나라 최초로 도

입 실천한 것이다.

1981년 이후 우리 농장에서는 7월 중순경부터 감미가 짙은 「꿀밀감」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경제성의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우리나라 최초로 밀감을 처녀 출하한다는 새로운 자부과 긍지로 나는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계속했다.

땅은 거뭇이 없다. 농토는 우리가 맘흘린 만큼의 대가를 정직하게 우리에게 보상한다. 그리고 싱그러운 잎과 꽃을 피워 우리에게 감사 할줄도 안다.

나에게는 취미와 건강생활의 비결이 따로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 숙기를 앞두고·소담 한 열매가 풍성하게 매어달린 밀감나무와의 밀어(密語)속에서 나의 인생은 얼마든지 푸르고 건강할수 있을 것이다.

